

## 어린이집 내 장난감도서관 구성에 대한 유아들의 이야기\*

### Children's Story on Spatial Composition in a Child Care Center Toy Library

이순희<sup>1</sup> 서영숙<sup>2</sup>

Soonhee Lee<sup>1</sup> Youngsook Suh<sup>2</sup>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ildren's desires in a toy library and what they want to do there in order to reflect their opinions on constructing a toy library in a child care center.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participatory observation on a 'toy library' project consisting of 20 five-year-olds attending B public child care center in Seoul. Observational notes were taken with voice and video recordings. The results of analysis on collected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wanted to call the toy library a toy playground because a toy library is not for study but for play and they wanted space for rest and display with no surveillance camera. Second, they wanted to play freely without any interruption, even leaving things scattered and also wanted to play with parents and friends. Discussion followed in the view of children's right to play and to express their opinions.

\* 이 논문은 2015년  
추계학술대회(한국보육지원학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 <sup>1</sup> 제1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sup>2</sup>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e-mail : youngss@sm.ac.kr)

【Key words】 Play, Right to Play, Toy Library, Toy Playground, Child Care Center

## I. 서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2006)을 통해 유아기(0~8세)<sup>1)</sup>를 아동권리의 결정적 시기로 규정하고, 유아기에 직면하는 발달과제, 특별한 이익, 경험 및 도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유아기 아동권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과 교육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령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이념(제3조)을 신설하여 비차별의 원칙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질 높은 보육제공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보육교사 권리강령을 개발(김은설, 박수연, 2010)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동의 보호와 성장, 발달권 뿐 아니라

1) 이 논문에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유아를 유아로 통칭하였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아동정책에 아동의 소리를 담으려 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도 12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욱 많이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 여전히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서 제대로 보호조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하는 것은 부모나 보호자 뿐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이자 강령이다. 연구자는 유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유아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아동권리존중 보육이라 명명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오고 있다(서영숙, 2011;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특히 유아들과의 대화에서 유아들은 늘 놀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종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제대로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이순희, 서영숙, 2013).

놀이는 성장기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자 향유해야 할 권리이기도 하다. UN아동권리 협약 제 31조는 아동이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은 방과 후에도 매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우남희, 2004). 더욱이 더 이른 시기부터 더 오랜 시간을 가정 밖에서 성장하는 유아의 삶을 보면 이들의 놀 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은 더욱 심각하게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부 2012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서문희 등, 2013)에 의하면 맞벌이 부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영유아 모두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이며, 외벌이 부모의 경우 영아는 6시간, 유아는 7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놀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제대로 놀 시간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이다.

유아에게 놀이는 주된 활동이자 생활 그 자체이다. 외부의 강요나 특별한 목적이 없이 흥미를 따라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하면서 놀이는 그들에게 즐거움은 물론 열린 사고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Singer & Singer, 1990), 창의적 역량을 발달시키게 된다(Fisher, 1992; Russ, Robin, & Christiano, 1999). 또한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협력하며 사회적 기술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열린 사고로 주변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상이 요구될수록 놀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아기부터 잘 놀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정책에서 놀이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Children’s Plan’(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을 통해 중앙정부가 국가차원에서 놀이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향후 놀이 전략의 정신과 추진 방법을 밝힌 play strategy- national level play for life(DCSF, 2007)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의 아동위원회(Children’s Trust)가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Statutory Guidance to Children’s Trust(DCSF, 2008),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이나 설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관리할지를 다룬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David, Gill, & Spiegel, 2008), 영감을 주는 놀이공간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예를 제시한 Design for play: A Guide to Creating Successful Play Space(Shackell, Butler, & Doyle, 2008)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놀이정책이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들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는 놀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견고한 이론적 기초와 원칙 위에서 출발한다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나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영국이 이런 놀이정책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놀이기회 보장과 개선이다(이종희, 2010).

우리도 놀이를 통하여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은 물론이며 사회 문화적인 발달까지 촉진시킬 수 있다는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 확보, 좋은 놀이감 확보 등의 기본적인 맥락들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정래, 2002). 흔히 놀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과 공간, 성인의 행동과 태도, 놀이감(장난감)과 사물, 놀이친구의 용이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보면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나친 조기교육으로 유아기부터 놀 시간을 제한하는 우리의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하거나 적절한 놀이공간과 놀이감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유아가 제대로 잘 놀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 놀이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모양육지원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난감도서관 사업은 놀이를 활성화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란 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서영숙, 이창미, 2013). 장난감도서관이란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과 영유아들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들을 구비하여 부모는 장난감을 대여하고 영유아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장난감도서관의 역사는 196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장애아를 둔 두 명의 부모가 유아기 장애자녀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하여 소규모 놀이모임에서 시작하여 영국을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에는 김 후리다 박사에 의해 1982년 성베드로 교육센터에 처음 설립되었다(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2013). 그 후 장난감 도서관은 시민운동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아동 발달과 양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와 가족,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양육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의 기본적인 의도는 영유아에게 놀이자극이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부모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있다(Jackson, Robet, Watjus & Chadwick, 1991; Kapellaka, 1992). 그리하여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해 줌으로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부모, 또래와 함께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는 곧 유아와 그들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장경희, 2008), 교육,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게 마련된 나눔의 장소인 것이다(신정희, 2005).

우리나라 장난감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대도시에서 현저히 집중되어 있으며 운영기관은 육아종합지원 센터와 영유아프라자, 장애아동복지관, 기타 법인 및 단체 순이며 운영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립 후 위탁운영 되는 곳의 비율이 가장 높다. 장난감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률을 보면 평일은 20~50명 미만이며 주말은 20명 미만이고 장난감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동의 연령은 만1세~만2세이다(김수정, 2012). 대체로 장난감도서관 운영시간 또한 관공서처럼 제한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중 영유아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이며 부모가 퇴근 후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장난감도서관을 활발하게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영유아가 놀이를 더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주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 부모들이 출퇴근 시간에 잠시라도 자녀와 노는 시간을 가지거나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정에서도 자녀와 더 잘 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사실 어린이집의 모든 교재교구가 놀이감이므로 기존 어린이집의 교실과 어린이집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에는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유아들이 맘껏 놀이하기에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보육실이 좁은 경향이 있고 이곳에서 놀이와 급간식, 낮잠 등의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평가인증을 비롯한 각종지침과 점검 등으로 정형화된 놀이 영역구분과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원하는 놀이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연령의 영유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놀이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 지역의 어린이집처럼 빼아짜라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으나(서영숙, 서지영, 2002) 소음 등으로 각 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부모들이 자기 자녀와 놀 수 있도록 보육실을 개방하는 것은 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에게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보육실 외의 별도의 공간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유아들이 잘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놀 권리 확보와 부모양육지원 차원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연구자들은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기 위해 기본적인 관련지침이나 설치기준 등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5)를 살펴보았으나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영유아용 놀이시설을 설치하면서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도록 하는 시도는 일부 사회시설물에서 이루어진 것 외에 어린이집 시설물 설치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자들은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전 과정에서 영유아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내고 이를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아동권리 존중의 측면에서 온전히 유아들의 의견을 담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구성함에 있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유아들의 바람과 장난감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권리존중 보육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구성된 장난감도서관은 유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구성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유아들의 바람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장난감도서관에서 유아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 II. 연구방법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유아들의 바람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2014년 4월1일~4월25일까지 약4주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 중에서 연구 상황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연구 참여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상적인 내용들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참여관찰 연구를 자료수집 방법으로 하였다. 참여는 감정적인 관여를 필요로 하지만 관찰은 객관적인 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여관찰로 통하여 연구현장에 들어가 한 달간 유아들의 다양한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획득하게 되었다(Bogdan, 1973). 유아들의 프로젝트활동 전 과정을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여 관찰하기, 기록작성하기, 포맷하기 등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 1. 연구 참여현장

연구 현장 즉 연구자의 어린이집은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국공립 B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환경은 비교적 넓고 쾌적하며 어린이집 전용 도서관, 실외놀이터, 실내놀이터, 강당이 별도로 있으며 교회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다. 특이한 점은 교회 내에 어린이집 후원부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정기적인 후원과 비정기적인 후원으로 물적, 인적 지원이 풍부하다. 연구자가 교회 측에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영유아들과 부모들에게 최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 하였을 때 적극 환영 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체단체의 지원 없이 어린이집 자체운영비와 교회 내 어린이집 후원부의 지원으로 유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최초의 장난감도서관을 완공하게 되었다.

반 구성은 만2세부터 만5세까지 총 6학급으로 정원 92명, 현원 9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 보육으로는 장애통합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통합 반은 만3세 1반과 만5세 1반을 운영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주제중심교육을 실천하며 2012년 9월부터 서울시 인성교육 최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인성교육 시범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장난감도서관 전문가를 만나 ‘영 유아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란 주제로 교사교육과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여러 차례 자문을 통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가 주제를 미리 결정하고 시작한 프로젝트 활동이었기 때문에 유아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전교육과 자문을 철저히 받았다.

프로젝트 활동 중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유아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도출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아들과 관내 영유아프라자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과 구청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는 장난감도서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유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함이기도하며 동시에 장난감도서관을 경험해 본 유아들에게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4주차 때는 유아들이 직접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일주일동안 생활해 보기도 하였다. 유아들이 직접 선택한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장소는 교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로 실내 놀이터를 선

택하였다. 실내 놀이터는 교실과 많이 떨어진 별도의 공간이다. 유아들은 그곳에서 일주일동안 점차적으로 교실에 있던 책상과 교구장과 심지어 피아노까지 옮겨 가서 생활하였다. 등원에서부터 하원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일과를 유아들이 직접 그날그날 계획하고 교실(장난감도서관)환경 구성(배치)도 매일매일 유아들 스스로 바꾸면서 생활하였다. 교사들이 보기에는 분주해보이고 무질서해 보였지만 유아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능동적이고 협력적이었으며 활기차 보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시 국공립 B어린이집 은하수반 만5세 유아 20명이다. 만5세 유아를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재원생들이 많아 교사나 연구자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자기의사를 잘 표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은하수반 만5세 유아 20명의 부모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는 초상권 동의서까지 모두 받은 후 실시하였다. 은하수반은 장애통합 반으로 일반유아 17명과 장애유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유아는 언어지연, 발달지연, 자폐3급으로 비교적 경도의 장애를 가진 유아들로 3명 모두 본 어린이집에 3년째 다니고 있었다. 일반유아들의 구성은 본 어린이집에 5년차 5명, 4년차 2명, 3년차 8명, 2년차 1명, 1년차 1명이다. 20명의 유아들 중 남자는 9명이며 여자는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사는 일반유아 담임교사 1명, 장애유아 담임교사 1명, 보조교사 1명과 본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총 4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동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유치원교사 경력 10년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11년차 근무하고 있다. 일반유아 담임교사는 2년제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총 교사경력 7년차 중 본 어린이집에 3년차이며, 장애통합 담임교사는 2년제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총 교사경력 8년차 중 본 어린이집에 7년차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으로 보육교사 3급 소지자로 초임교사이다.

일반유아 담임교사와 장애유아 담임교사는 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보조교사는 사진촬영과 녹음 및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비형식인 개별 면담을 하였으며 녹음자료를 전사하는 등 자료 수집을 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 유아들의 일반적 배경 특징

나이	구분	재원기간	성 별		전체
			남	여	
만5세	장애유아	3년	2	1	3
		5년	2	3	5
	일반유아	4년	1	1	2
		3년	3	5	8
		2년	1		1
		1년		1	1

### 3. 자료생성 및 분석

자료생성은 2014년 4월1일 ~ 4월25일까지 4주간 프로젝트 진행시간인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주3회 교실에서 참여관찰을 하였다. 그 외의 시간은 녹음 자료와 동영상자료, 비구조화 된 면담자료 등을 통하였으며 프로젝트 교사회의를 참여관찰(Schwandt, 2007)하였다. 자료생성에서 삼각기법(Denzin, 1989; Hammersley & Atkinson, 1983)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제공된 다양한 자료, 예를 들어 전사록, 기록작업, 교사회의록, 유아기록일지, 연구자일지가 생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 자료 분석은 3가지 코딩방법 중에서 근거된 귀납적 맥락-민감적 구조에서 이루어졌다(Saldana, 2013; Schwandt, 2007). 근거적 귀납적 맥락 민감적 구조에 따른 자료 분석이란 먼저 범주를 생성하기 위해서 반응자의 실제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한 후, 데이터 조각들과 범주를 앞뒤로 살펴보면서 범주 의미를 정교화 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윤은주, 2015).

자료 분석은 1차 코딩에서 나온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2차 코딩에서는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주제어 중 유아의 목소리와 제스처가 강조되는 부분이나 여러 유아들이 함께 동의하는 부분들을 간추려 내었다.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놀이터)에 대한 유아들의 요구들 중 반복적인 진술들을 구분하여 그중 비슷한 항목들은 하나로 묶으며 총 2개의 범주로 좁혀나갔다. 2개의 범주는 장난감도서관(놀이터)에 대한 유아들의 공간적인 요구와 장난감도서관(놀이터)에서 이루어질 놀이에 대한 요구로 정하고 각 범주별로 3개의 항목으로 내용을 결정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 삼각기법을 적용하여 다면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재검토 하였으며 보육 전문가 3인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고 해석의 믿을만한 근거(Guba & Lincoln, 1989)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Ⅲ. 결과 및 해석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 구성을 위해 유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만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프로젝트 활동을 참여 관찰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만5세 유아들의 바람과 장난감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유아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유아들의 바람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만5세 유아들의 바람은 장난감도서관 명칭에 대한 바람과 장난감도서관 공간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났다. 명칭에 대한 바람으로는 장난감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거부하고 장난감놀이터라는 명칭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만5세 유아들은 공부와 놀이 사이에

갈등을 겪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아들은 나름대로 놀이와 공부를 구분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난감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바람으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CCTV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장난감도서관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놀이 시 방해 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및 전시의 공간으로 바라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난감도서관 명칭에 대한 바람

(1) 장난감도서관이 아닌 장난감놀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연구자는 만5세 유아들에게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물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유아들의 의외의 반응에 오히려 연구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의 유아들의 싸늘한 반응과 잠시 흐르는 적막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으로 공부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마음껏 놀 수 있는 장난감놀이터를 바라고 있었다. 장난감도서관이란 일반적인 명칭을 거부하고 장난감놀이터를 말하고 있었다.

교사: 만약 우리 어린이집에 장난감도서관을 만든다면 어떨까?

예서: 장난감도서관? (한동안 적막이 흐른다.)

선우: (거부의 눈빛으로) 그럼 우리 장난감으로 또 공부해야 돼요?

예서: 장난감으로 노는 거 아니 예요? (불만의 목소리로)

교사: 노는 거 맞아요.

예서: 근데 왜 도서관이에요?

교사: 그러게 도서관에서는 무얼 하지?

선우: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죠. 조용히 책 읽거나 저번에 우리 구립도서관 갔을 때 거기에서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예서: 맞아. 아저씨가 우리 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선우: 우리 어린이집 도서관에서도 조용히 책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장난감으로 조용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참여관찰, 2014.4.18.)

소연: 장난감도서관에서 공부안하고 우리는 놀고 싶어요.

현규: 놀이터에서 막 노는 것처럼(팔을 휘저으며)

소연: 장난감가지고 놀고 싶어요.(당장이라도 나가서 놀고 싶은 표정으로)

태린: 장난감놀이터 그런 거요.

교사: 무슨 놀이터?

태린: 장난감놀이터요.(더 큰소리로)

(참여관찰, 2014.4.18.)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을 공부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으로 인근도서관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본 어린이집 내에 도서관을 사용해 본 경험



때문인지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장난감으로 뭔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공부해야 하느냐며 불만의 눈빛을 강하게 표시 하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도 함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조용히 읽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인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어린이집은 기존 장난감도서관과는 달리 책만 있는 도서관이 별도로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 (2) 공부와 놀이는 달라요.

장난감도서관이란 명칭을 두고 만5세 유아들은 공부와 놀이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만5세 유아들은 공부와 놀이에 대한 서로간의 논쟁을 통하여 나름대로 구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소연: 책 읽는 것도 노는 거 아닌가?

선우: (소연을 쳐다보며) 아니야. 그건 공부야.

소연: 아니야 노는 거야.

교사: 공부와 노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선우: 다르죠. 잡기놀이는 노는 거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나누기 시간은 공부하는 거죠.

교사: 친구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어떤 것 이예요?

선우: (손을 번쩍 들며) 이야기나누기 시간요.

소연: 미술시간도 공부시간 이예요.

장원: 미술은 놀이야. 맘대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리기도 하잖아.

소연: 아니 그런 것 말고 미술 선생님하고 하는 것.

장원: 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개를 끄덕인다).

예서: 미술은 어떨 때는 공부하는 거고 어떨 때는 노는 거야.

장원: 그럼 중간이네.

태린: 친구랑 놀 때 마음대로 피아노 막치는 것은 재미있어. 그런데 피아노 선생님 오면 계속 연습하니까 힘들어 공부하는 것 같아.

현규: 잡기놀이는 그냥 노는 거니까 놀이야. 그치?(마치 친구들의 동의를 구하는 듯하다)

하성: (큰 소리로 자신 있는 표정으로) 영어는 공부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매일매일 하래.

(참여관찰, 2014.4.18.)

만5세 유아들이 논쟁을 통하여 말하는 공부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을 공부라고 말하고 놀이란 스스로 주도하고 자발적이며 비교적 활동적인 것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피아노를 치더라도 선생님께 배워서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은 공부이며 자기 스스로 치고 싶어서 치는 것은 놀이에 해당하므로 놀이와 공부사이의 중간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유아들은 집에서 하는 공부는 힘들다고 하고 어린이집에서 자연스러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은 재미있다고 느낀다. 이는 어린이집에서의 놀이는 비형식적인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만5세 유아는 공부와 놀이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구분은 하나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2>는 만5세 유아들이 놀이와 공부를 직접 구분한 것이다.

<표 2> 놀이와 공부의 구분

놀이	놀이와 공부의 중간	공부
레고놀이		
바깥놀이		이야기나누기
잡기놀이	피아노	영어
미끄럼틀	장구	발레
공놀이	운동	한글쓰기
팽이놀이	미술	영어쓰기
놀이공원에서 놀기	체육	책읽기
강아지하고 놀기		(마법천자문, 미로 찾기
탑 블레이드		등의 어려운 책)
핑거보드 등		

## 2) 장난감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바람

### (1) CCTV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 CCTV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유는 자신들의 놀이를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놀이터는 자신들만의 고유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한다. 유아들은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며 자기들만의 비밀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장원: 나는 장난감도서관에 CCTV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신나게 놀 수 있어.

CCTV 있으면 어른들이 다 보잖아. 나는 노는 거 보는 거 싫어.

교사: 왜요?

장원: 방해되잖아요. 놀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못 놀잖아요.

누가 우리 노는 거 지켜보는 거 기분 안 좋아요.

현규: 맞아요. CCTV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원: 우리 어린이집은 CCTV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현규: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보면 우리가 놀 수 있는 곳, CCTV가 없는 곳.

민기: CCTV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하지?

장원: 그럼 우리가 CCTV를 가려버리자.

민기: 좋아 가리자.

(참여관찰, 2014.4.10.)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5세 유아들은 CCTV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몇몇 유아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 의견에 동참하여 어

린이집 내에서 가장 놀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여 종이로 CCTV를 가리고 교실에 있던 모든 짐을 그 곳으로 옮기고 심지어 피아노까지 옮기며 유아들이 직접 놀이 환경을 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 놓은 놀이터에서 일주일 동안 맘껏 놀이를 진행하였으며 하루의 일과도 그날그날 유아들이 직접 계획하였다. 특별한 놀이의 규칙은 없었으나 평소보다 더 질서 있어 보였고 아이들의 얼굴은 그 어떤 때 보다 행복해 보였다. 유아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알아서 하였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성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간을 볼 수 있었다.

(2)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유는 놀다가 힘들면 누워서 좀 쉬었다가 다시 놀고 싶다고 한다. 즉 장난감도서관에도 휴식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혜인: 나는 장난감놀이터에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교사: 침대?

혜인: 예, 침대요. 놀다가 힘들면 좀 누워서 쉬었다가 놀게요. 교실에 휴식영역에서 쉬는 것처럼요.

윤하: 맞아 놀이터에 침대가 있으면 참 좋겠어.

(참여관찰, 2014.4.22.)

유아들은 놀이 시 휴식이 필요할 때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터나, 실내놀이터, 장난감 놀이터에도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성인의 생각으로는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유아들은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를 원한다. 당연한 것을 성인들은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장난감놀이터에 침대가 있다면 놀이 시 힘들 때 휴식을 통하여 건강한 놀이를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 원하는 장난감놀이터는 유아들의 여가와 휴식 권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갖추어야 할 것 같다.

(3) 놀이 시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및 전시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5세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나 혼자놀이 또는 개별놀이를 할 때 옆의 친구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장난감놀이터에 책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책상에서 레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들(폐품 등)을 이용해서 만들기를 하려면 책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책상의 의미는 자기가 만든 물건 또는 장난감을 보호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놀이에 방해 받고 싶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 공간이기도하다.

선우: 장난감놀이터에는 당연히 책상이 있어야 돼요.

교사: 왜 책상이 필요하지요?

민기: 레고 만들 때도 바닥에 앉아서 하거나 옆드려서 만들면 힘들어요.

선우: 그치 책상이 있으면 괜찮아.  
민기: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망가지잖아.  
선우: 그럼 막 화가나. 그러니까 책상이 있으면 못 밟아.

(참여관찰, 2014.4.22.)

소연: 우리 엄마는 내가 만든 거 가져가면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 없어져.  
세원: 버렸으니까 없지.  
희원: 우리 엄마도 막 버려.  
소연: 또 보고 다시 만들고 싶은데 엄마가 버려서 못 만들어. 그래서 속상해.  
희원: 지저분하다고 가져 오지 말래.(불만의 말투로)  
세원: 저번에 박물관 갔을 때 뭐 막 올려놓은 거 봤잖아. 못 만지게.  
교사: 전시해 놓은 거?  
세원: 네 맞아요. 전시요.  
소연: 장난감놀이터에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든 거요.

(참여관찰, 2014.4.22.)

만5세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품들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면 부모님들은 지저분하게 여기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는데 유아들은 이를 매우 안타까워함을 볼 수 있다. 장난감놀이터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보관하고 싶어 하였다. 오랫동안 두고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

장난감도서관(놀이터)은 자신의 놀이에 방해 받고 싶지 않는 공간이기를 원하고 동시에 자신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보관하여 알릴 수 있는 공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난감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살펴본 결과 유아들은 가정에서 마음껏 어질러 놓고 노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고 호소하였다.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완성된 장난감보다는 재활용품 등으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만들며 어질러 놓아도 괜찮은 그러한 놀이를 하고 싶어 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어 하고 친구랑 함께 놀고 싶어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마음껏 어질러도 되는 놀이를 하고 싶어요.

유아들의 놀이에 있어 장난감은 놀이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 도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놀이의 형태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도구의 선택은 온전히 놀이를 주관하는 놀이자 즉 유아들의 몫인 것이다. 유아들은 완성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보다 유아들이 직접 만들며 구성해 갈 수 있는 놀이를 원하는 것 같다. 유아들이 직접 만들며 놀 수 있는 놀이감은 자연히 많이 어질러 질수 밖에 없으나 가정에서는 그런 놀이를 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에서 마음껏 어질러 놓고 놀고 싶다고 한다.

혜인: 장난감놀이터에서는 막 어지르면서 놀고 싶어.

교사: 어지르면서?

우진: 집에선 어질러 놓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서 공이나 탐 블레이드 같은 거 갖고 놀아요. 근데 재미없어요.

규린: 친구랑 같이 만들면서 놀면 더 재미있어요. 어린이집에는 만들게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우진: 친구들도 아무거나 가지고 신기한 거 막 만들고 하니까 더 재미있어.

혜인: 우리 집도 어질러놓으면 엄마한테 혼나.

(참여관찰, 2014.4.23.)

값 비싸고 질 좋은 장난감을 많이 제공해 주고 싶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품으로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놀이 재료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경험해 보고 싶어 하나 가정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부족하다고 한다. 만5세 유아들은 완성된 장난감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없으므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친구와 직접 만들고 조립하고 응용하면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더 즐겨하는 것 같다. 공, 팽이, 미끄럼틀 등 신체활동 기구들은 주로 완성된 장난감들로 이루어져 몸으로 놀기에 적합하며 구성놀이라기보다는 몸 체험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장난감들이 있고 성인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미리 다 갖추어진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이 아니라 유아 자신들이 놀이 시 필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장난감놀이터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그러한 장난감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유아는 훨씬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 2)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어요.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놀이터에서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유아들은 놀이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집에서 놀이를 할 때 부모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자기들만의 고유의 놀이 이터라도 부모님이 함께 할 때 더 재미있다고 한다.

교사: 애들아! 장난감놀이터에서 뭐하고 싶어요?

민혁: 장난감놀이터에서 엄마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요.

민준: 엄마 아빠랑 같이 놀이하면 진짜 재미있는데 블록놀이.

다은: 나도 집에서 엄마랑 블록놀이 할 때 제일 재미있었어.

우진: 난 아빠랑 레고 조립할 때 제일 재미있었어.

하성: 나는 엄마랑 파스넷으로 그림 그릴 때 제일 재미있어. 탐 블레이드도 그랬어.

한서: 나는 집에서 매일 TV보는데 심심해서.

희원: 난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해. 심심하면 너도 게임해. 게임도 나름 재미있어.

세원: 나는 컴퓨터로 게임해. 아빠가 바빠서 매일 늦게 와.

우리 엄마 아빠는 바빠서 나랑 못 놀아.

(참여관찰, 2014.4.3.)

장난감놀이터에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었는데 유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다고 한다.

즉 무엇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누구랑 놀고 싶다고 대답을 한다. 그만큼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은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할 때 더 재미있어 하지만 가정에서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TV를 보거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며 혼자만의 놀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지만 부모가 바빠서 놀아주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친구랑 놀고 싶어요.

유아들에게 있어 친구는 놀이 할 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친구는 놀이를 더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또 다른 차원의 놀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유아들은 놀이를 말할 때 친구를 빼놓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학원가서 공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학원에 가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와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교사: 애들이! 장난감놀이터에서 또 뭐하고 싶어요?

규린: 친구랑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어요.

예린: 친구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면 진짜 재미있어요.

하은: 소꿉놀이해도 재미있어.

교사: 놀이 하려면 꼭 친구가 있어야 해요?

하은: 친구 없으면 놀이 못해요. 소꿉놀이 할 때도 같이 해야 하니까 꼭 있어야 해요.

예린: 어린이집에는 친구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집에 가면 친구가 없으니까 심심해요.

하성: 태권도 학원가면 친구 있어. 난 태권도 학원가면 또 친구 있어 좋아.

규린: 난 피아노 학원가면 친구 있어. 피아노에서도 친구랑 또 놀아.

하은: 학원가는 건 싫은데 친구 있어서 좋아.

(참여관찰, 2014.4.3.)

만5세 유아들의 친구와 함께 하는 놀이를 4주 동안 관찰한 결과 여아와 남아의 친구와의 놀이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들은 뭔가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놀이를 구성해 가는 보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여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구성해 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그 자체를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남아들은 주로 공, 팽이 등을 함께 가지고 놀며 친구는 그냥 놀이의 상대로 필요할 뿐 이다. 즉 남아들은 자신의 놀이를 위해서 ‘또 다른 나’, ‘나랑 같이 놀 수 있는 나’ 같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도서관 구성에 대한 유아들의 바람과 장난감도서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만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참여관찰을 통해 얻어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5세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이란 명칭을 장난감놀이터로 명명하길 바라는데 이는 도서관이란 공부하는 곳이고 자기들은 공부보다 놀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과 휴식할 수 있도록 침대를 갖추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또한 놀이 시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과 자기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도 희망했다.

유아들은 공부와 놀이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나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Dewey는 ‘놀이’와 ‘일(공부)’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이용우, 2007) 본 연구에서 만5세 유아들은 놀이와 일(공부)은 상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이 원하는 명칭을 붙이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지닌 고정관념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고 놀이를 더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아들은 놀이를 할 때 성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놀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고유공간을 원하고 그 공간을 놀이터라고 한다. 그 놀이터는 놀이를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공간으로 보인다. 친구의 집에서 놀 때는 친구의집이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에서 놀 때는 어린이집이 놀이터가 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된 놀이터가 아니라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놀이터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놀이에는 놀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의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어른들의 사회생활과 같은 그들만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만5세 유아들은 놀이 시 CCTV를 종이로 가리고 놀이를 진행할 만큼 CCTV를 통하여 놀이를 지켜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감을 표현했다. 최근 아동학대사건을 통하여 CCTV 의무설치관련 법안이 2015년 4월 30일로 국회본회를 통과하고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5년 5월 18일로 공포되었는데 유아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은 유아들의 안전한 놀이와 놀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당히 개입해야할 필요성과 유아들 스스로 놀이를 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도를 적당히 균형 있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

만5세 유아들이 장난감도서관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피곤함을 짐작하게 한다. 충분한 휴식 없이는 활동의 효율성이 반감 된다는 점에서 학습시간 못지않게 놀이와 휴식은 중요하다(김지희, 2012). 유아는 휴식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교실 외에도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아들의 권리존중보육의 실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순희, 서영숙, 2013).

또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서 놀이 시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 및 전시공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현재의 보육실 공간이 자유롭게 놀기에 부족하며 개인공간이 없음에 대한 갈등을 드러낸다고 본다. 공간 밀집도와 사회적 밀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유아에게 적절한 놀이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중요하다(Ford, 1993).

그동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공간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는데(현은자, 고선주, 오연주, 2009) 유아들의 장난감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바람을 살펴보았을 때 더욱 유아의 의견을 청취하는 놀이터 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를 위한 환경은 공간을 구성하

고 싶은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성장하는 능력을 도울 수 있는 구성 요소와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박병희, 박선희, 2002).

둘째, 장난감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활동은 마음껏 어질러도 되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하였으며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다고 하였다. 보육실에서 자유놀이시간을 가지는 하나 여전히 놀이감의 용도대로 놀이 하도록 요구되는 반면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놀며,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것도 허용되는 것을 요구한다. 놀이 환경을 미리 다 갖추어 주기보다는 유아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놀이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놀이 자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유아들은 살아가고 있는 자연환경과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환경 속에서 놀이감을 얻고 그 놀이감을 통해 유아들이 속한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이은화, 정진, 박현주, 김현정, 2000). 그러므로 놀이터에 비치할 놀이감이 재활용품이어도 좋을 것이다. 레지오에밀리아의 레미다센타는 지역의 공장이나 수공업체 등에서 만든 물건 중 불합격품이나 팔고남은 재고품과 재생한 물건들을 기부 받아 레미다센타(재활용센타)에 모아서 분류하여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서영숙, 서지영, 2002).

유아들은 장난감도서관에서도 놀이친구를 필요로 하며, 부모님과도 함께 놀고 싶어 한다. 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신념에 따라 놀이 참여패턴이 달라진다. 미국의 아버지-유아간의 놀이에서 놀이를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유아와 책읽기, 쌓기, 퍼즐 맞추기 등과 같은 놀이 활동을 하는 반면 놀이를 유아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아버지는 신체놀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어떤 놀이를 하던 유아가 부모와 좀 더 놀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면 장난감도서관에 다양한 놀이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의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공간의 구성물과 놀이감과 부모 및 친구들과 환경적인 요인과 인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놀이감과 부모 및 친구들은 주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계성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규칙 없이 정보가 풍부한 환경적 조직이다(박병희, 박선희, 2002). 결국 만5세 유아들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바람을 한마디로 ‘관계적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 요인에서 독립적인 성질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상호 관련 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문화적인 요인까지 포함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내에 장난감놀이터를 실제로 설치하였다. 공사기간 내내 유아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설계사부터 아동전문가와 시공업자까지 수차례 만나 논의 하며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여 2014년 5월 28일 제14회 ‘세계놀이의 날’을 맞이하여 오픈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장난감도서관은 성인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장난감놀이터는 부모들과 영유아들에게 가장 근접하고 익숙한 곳인 어린이집 내에 유아들의 의견을 그대로 담아 만들어졌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수용하여 유아의 참여권이 보장되게 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것이다. 또한 국내 장난감도서관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말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아예 서비스가 없는 것에 비해 어린이집 내 장난감도서관은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들 즉 토요일보육이나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에게는 좋은 놀이 환경을 제공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기갑 (2006). **유엔아동권리위원회·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정 (2012). 전국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발전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설, 박수연 (2010). **보육 시설장·교사 윤리강령 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정래 (2002). 아동의 놀 권리: 그 교육적 필요성의 철학적 정당화 논의. **아동권리연구**, 6(1), 31-46.
- 김지희 (2012). 아동의 생활시간과 놀이시간 양태연구: 방과 후 보호자 유무에 따른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50(8), 13-19.
- 박병희, 박선희 (2002). **유아, 공간, 관계: 유아를 위한 포괄적 교육환경 프로젝트**. 서울: 다음세대. 보건복지부 (2015).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등 (2013).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서영숙 (2011. 10).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 실태와 실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제1차 육아선진화포럼자료집, 서울.
- 서영숙, 서지영 (2002).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서울: 학지사.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보육교사용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보건복지부.
- 서영숙, 이창미 (2013. 11). **장난감도서관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육아지원사업의 꽃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정책포럼,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울.
- 신정희 (2005). 한국의 장난감도서관에 관한 인식, 국제장난감도서관협회 9차 컨퍼런스, 리스본.
- 우남희 (2004). 권리와 한국의 조기교육. **한국아동권리학회**, 8(2), 189-207.
- 윤은주 (2015). 자기주도적 프로젝트교사교육 콘텐츠 개발 탐색연구: 유아교사의 프로젝트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6(3), 195-213.
- 이순희, 서영숙 (2013). 아동권리 존중 측면에서 본 휴식 및 낮잠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35-355.
- 이용우 (2007). **존 듀이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희 (2010). 아동 놀이의 국가적 정책화: 영국의 사례. **아동학회지**, 31(3), 161-181.
- 이은화, 정진, 박현주, 김현정 (2000). 문화와 놀이의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20(1). 43-58.
- 장경희 (2008). 한국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초연구, **부모교육연구**, 5(2), 79-100.
- 현은자, 고선주, 오연주 (2009).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기관: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청소년기관. **아동학회지**, 30(6), 139-151.

-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2013). **장난감도서관 소개**. [http://www.ktla-toylib.or.kr/contents/contents.php?gmb\\_code=XL92568&cate\\_code=BK29854&cts\\_code=LB90310](http://www.ktla-toylib.or.kr/contents/contents.php?gmb_code=XL92568&cate_code=BK29854&cts_code=LB90310)에서 2016년 2월 10일 인출.
- David, B, Gill, T. & Spiegel, B. (2008). *Managing risk in play provision : Implementation guide*.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Bogdan, R. (1973). Participant observation, *Peabody Journal of Education*, 50(4), 302-308.
- Denzin, N. K. (1989). *The research ac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DCSF). (2007). *The Children's Plan : Building brighter futures*, London: DCSF.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 Families (DCSF). (2008). *Fair play : A consultation on the play strategy*.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Fisher, E. (1992). The impact of play on development: A meta-analysis. *Paly & Culture*, 5(2), 159-181.
- Ford, S. A. (1993). The facilitator's role in children's play. *Young Children*, 48(6), 66-69.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Hammersley, M., & Atkinson, P. (1983). *Ethnography: Principles in practice*. London: Tavistock.
- Jackson, S. C., Robet, L., Watjus, M., & Chadwick, E. (1991). Play for all children: toy library solution. *Childhood Education*, 68(1), 27-31.
- Kapellaka, U. (1992). Toy library: Learning through play with toy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24(2), 53-56.
- Russ, S., Robin, A., & Christiano, B. (1999). Pretend play: Longitudinal prediction of creativity and affect & fantasy in childre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2(2), 129-139.
- Saldana, J. (2012).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Schwandt, T. (2007). *Dictionary of qualitative inquiry* (3rd ed.). Thousand Oaks: Sage.
- Shackell, A., Butler, N., Doyle, P., & Ball, D. (2008). *Design for play: A guide to creating successful play space*. Lond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Singer, D. & Singer, J. (1990). *The house of make-believe: Children's play and developing imagin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논문투고 : 15.10.15  
수정원고접수 : 16.02.15  
최종게재결정 : 16.04.10